

역사의 전환점에서...



서산문화원장
이준호

경술국치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하는가. 애국애족의 국가관을 투철히 해서 거듭되는 역사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거늘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1910년 8월 22일 일본 데라우치 마사하케 통감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맺어진 양국의 합병조약을 일본에서도 즉시 공표를 못하고 일주일후인 8월 29일 순종에게 강제로 공포토록 함으로서 일제 36년의 핍박이 시작된다.

100년이 지난 지금 강제로 식민지화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일합병 조약의 불법성을 인정치 못하고 있는 졸렬하고 비굴한 집단들이다.

이로 인해 우리민족은 36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치를 떨며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인 일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걸 보면 금수이하의 못된 인종임이 분명한 것 같다. 힘으로만 밀어 대어 남의 나라를 짓밟는다면 일본인들 남아나겠는가? 강대국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동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갖은 핍박과 설움 속에서도 구국일념으로 싸워준 독립투사들에게 다시 한 번 마음 가다듬어 존경의 예를 올려야겠다.

우리지역에도 부재 이철영 의사와 한월당 김상정 열사 등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내 던져가며 일제 탄압에 항거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역사를 되새겨 그 분들의 영혼을 달래고 뜻을 기리며 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8월은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과 나라를 되찾은 기쁨이 교차하는 달이었다. 이토록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8월 한 달을 보내며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을 가르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하라.」

우리는 지금 영어, 수학에 매달리는 입시지옥에서 허우적대는 청소년들을 구제하질 못하고 있다.

점점 꺼져가는 역사 인식을 새롭게 다져서 국치 100년의 역사를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서산지역 출신 시복시성 대상자의 믿음과 삶

김진소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차례

1. 순교자의 땅 내포
2. 순교자의 믿음 삶이
3. 해미의 시복시성 대상자들
4. 끝나지 않은 순교

1. 순교자의 땅 내포

세간에 알려지기를 충청인의 기질은 외유내강하다고 한다. 충청도 내포지방의 수많은 순교자를 보면 그 말에 수긍이 간다. 한국천주교 순교자들 가운데 충청도 내포지방 신도들처럼 참혹한 형벌을 당한 예가 없다.

한국천주교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천주교 신앙이 민중화된 곳은 충청도 내포지방이다. 1798년 정산에서 순교한 일자무식한 이도기(李道起) 말이다. “저는 무식해서 양반 선비들의 뉘인 공자와 맹자의 도(道)는 알지 못하며, 불도(佛道)는 중들에게만 상관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천주교 신앙은 일찍이 향촌

사회에 끼어들어 민중들과 어우러져 살았다. 한국천주교 박해사(迫害史)에서 충청도 출신 순교자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 그 수가 많은 것은 천주교 신앙이 대중사회에 널리 보급되었던 까닭이다.

조선통치자가 정책적으로 천주교를 박해한 것은 1801년(辛酉年)부터이다. 그러나 충청도에서는 1791년 신해박해 후 1793년부터 순교자가 발생하였고, 1797년(丁巳年)부터 1800년까지 일어난 박해 때 해미(海美)에서는 천주교도 100여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순교자중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2명뿐이다. 그리고 해미지역 순교사 연구자는 1811년부터 1839년까지 8명, 박해가 가장 치열한 1866년부터 1868년까지는 179명 이상으로 파악하면서 405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한국천주교는 1984년 103위 성인을 모셨다. 이분들은 1839년, 1846년, 1866년 박해 때의 순교자들이다. 이 박해 때는 프랑스 파리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천주교의 선교를 책임 맡아 관리하였고, 순교자들 중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교회가 주관하여 시복시성운동을 추진하고, 파리외방선교회가 한국에 진출하기 이전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시성은 한국교회의 과제로 남겼다.

한국천주교회는 2001년부터 1791년~1838년, 즉 초기와 중기 박해 때 순교한 분들 중 시복시성 대상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선정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몇 교구의 요청으로 103위 순교자에서 누락된 1839년(기해년)과 1866년(병인년) 박해의 순교자를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최종 선정된 125명에 대한 시복시성을 2009년 6월 교황청에 제출하였다. 125명중에 해미 순교자는 인언민(印彦敏, 마르티노, 1737~1800), 이보현(李步玄, 프란치스코, 1773~1800), 김진후(金震厚, 바오로, 1739~1814) 등 3명이다.

시복시성(諡福諡聖)의 시복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순교자를 공식적으로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 : 준성인 準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로마 교황의 선언 예식이며, 시성은 성인 품위에 올리는 교황의 선언 예식이다. 복자는 그 지역 천주교에서 공경을 받고, 성인은 전세계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공경한다. 복자는 한국교회에서 공경을 받지만 성인되면 세계교회로부터 공경을 받게 된다.

2. 순교자의 믿음 삶이

그리스도교에서 순교자는 신앙의 진리를 증언하고,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유가(儒家)에서도 진리의 확신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공자는 논어(위령공 15. 8)에서 “지사(志士)나 덕망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인(仁)이 손상될 구차

하게 삶을 구걸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고 한다. 맹자는 (고자장구 상, 10)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요, 의(義)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지킬 수 없다면 목숨을 포기하고 의를 택하겠다.” 고 한다. 그렇지만 유가에서는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유가에는 내세(來世)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베품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순교자들은 천주교의 으뜸 계명(宗旨)을 ‘하느님 사랑’ 과 ‘이웃사랑’ 으로 인지(認知)하였다. 그리고 내세를 가기 위한 조건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의무였다. 하느님은 흔히 하는 말이거나 책에서 글로 읽는 하느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낳으신 생명의 근원인 부모였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실천해야 하듯 순교자들은 예수가 하던 일을 삶 안에서 되살려 내어야 했다.

한국천주교는 사람을 제 2의 하느님이라고 가르쳤다. 신도들 중 특히 양반출신 신도들은 사람이 하느님처럼 존귀하다는 인간존엄성을 알게 되면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신분(身分制度)의 옷을 벗었다. 신분과 성별의 구별은 인정하지만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대접했다.

신도들은 임금의 명령인 국법보다 양심을 앞세웠다. 양심은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이었다. 그래서 홀로 있어도 자기를 속일 수 없고,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조심하며 살았다. 무자기(無自欺) 곧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영혼과 양심을 세척하며 살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름다운 영혼, 깨끗한 영혼이었다. 영혼이 깨끗하도록 닦는 일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다. 구방심(求放心) 곧 잃어버린 양심을 찾는 노력이 본분이었다. 심성이 고약한 신도들은 천주교에 입교한 후 성격을 고쳐 인간미가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권력과 재력이 아니라 악한 영혼을 가졌는가? 거룩한 영혼을 가졌는가? 이것이 사람됨을 평가하는 잣대였다. 사람의 영혼과 양심은 칼이나 도끼나 폭력으로 부실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순교자들은 현세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았다. 현세는 내세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고, 죽음은 통과(通過)의례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마태 5, 48)라는 예수의 요구대로 아집(我執)과 이기심의 창고인 인간본능을 극복하고, 자기완성을 위한 수양을 채찍하며 살았다. 아집과 이기심에 패배 하면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진배없고, 이기심과 아집을 죽이면 몸은 죽었어도 사는 것이다. 순교자는 살아서 죽을 것

인가? 죽어서 살 것인가? 끊임없이 반문하며 살았다. 순교자들은 소유욕을 벗고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살았다. 부자 신도들은 곳간 문을 열어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다.

3. 해미의 시복시성 대상자들

1) 인언민(印彦敏, 마르티노, 1737~1800)

인언민은 충청도 덕산 주래(현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에서 1737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성격은 유순하면서도 강인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학문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어느 날 친분이 두터운 진사 황사영을 만나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어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 그리고 상경하여 1795년부터 한양에 거주하던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고, 큰 아들 요셉을 주 신부에게 맡겨두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은 천주교 사회에 유명한 교우 집 딸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에 전념하고자 가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친척들에게 사유를 솔직히 고백하고 천주교 교리를 설명해 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1797년 정사박해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공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서슴없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히고 천주를 위하여 목숨 바치기를 원한다는 뜻을 표명하여 옥에 갇혔다. 그 후 청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감사의 명에 따라 고향인 덕산을 관할하던 해미 진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청주에서 받은 고문으로 해미까지 걸어 갈 수 없어 역마(驛馬)에 실려 갔다.

그는 해미 옥에서 이보현을 만났다. 두 사람은 마치“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루가 24, 26)라고 한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말처럼 하며 서로 격려하여 거듭되는 심문과 형벌을 견뎌 내며 굳굳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관장은 배교하라고 몇 번을 닦달했지만 인언민의 뜻을 꺾지 못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진심입니다”. 그는 죽음을 택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남기고자 했다.

형리들은 인언민에게 마지막 사자밥을 먹이고는 옥에 끌어내어 다시 매질했다. 인언민은 매질을 당하며 “그렇구 말구.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하며 고통을 이겼다. 형리들은 매질로는 시원찮아 큰 돌을 들어 가슴을 몇 번 내리치자 턱은 떨어져 나가고 가슴뼈가 바수어져 숨이 멎었다. 때는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 그의 나이 63세였다.

김유신

595(진평왕 17)~673(문무왕13)

본관 김해,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12대손으로, 화랑이 되어 화랑정신을 기르고, 611년 삼국통일을 기원하고 무술을 닦은 뒤 국선이 되었다.

- 644년 상장군이 되어, 백제의 가혜성등 7개 성을 쳐 이기고 이듬해 1월에 개선하였다. 그런데 왕을 알현하기도 전에 매리포성이 백제군의 맹공을 받고 있다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장군

- 파발에 곤장 상주 장군이 되어 출전, 요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647년(진덕여왕 1)여왕을 폐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대신 비담과 염종의 반란을 토벌하였고, 무산등 3개성을 공격해 온 백제군을 보병, 기병 1만으로써 크게 격파하였다. 이찬 벼슬로 승진되어 상주행군대총관이 되었다. 649년 석토성을 공격해 온 백제의 장군 좌평 은상을 무찔렀다.
- 654년 여왕이 후사 없이 죽자, 재상으로 있던 이찬 알천과 의논하여

이찬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듬해 백제의 도비천성을 공략하였으며, 이 때 백제왕의 문란한 정치를 보고 백제를 멸할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다. 660년 상대등에 올랐고, 신라 정예군 5만과 소정방이 이끈 당군 13만이 연합하여 사비성을 함락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1년(문무왕 1) 나당 연합으로 웅산성의 백제 잔적을 토벌하고, 663년 백제의 부흥군을 두솔성에서 대파하였고, 665년 당나라 고종으로부터 봉상정경, 평양군개국공에 보해졌다. 이듬해 나당연합군으로 평양을 칠 때 연합군 대총관이 되었으나 왕명으로 금성에 남아 국방을 도맡았다.

고구려 정벌 직후 태대각간의 최고직에 오른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는데 힘써 한강 이북의 고구려땅을 수복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져 놓았다.

673년(문무왕 13)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흥무대왕에 추존되고 경주 서약서원에 제향되었다.

[文獻] 三國史記, 三國遺事 等

■ 영정개요 ■

표준영정지정년도 : 1977년
 제작작가 : 월전 장우성
 영정크기 : 98cm X 187cm
 소장지및소장인 : 진천 길상사





■ 추석의 어원

추석은 우리 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佳절(仲秋佳節)이라고 한다. 한가위의 한은 '하다(大·正)'의 관형사형이고, 가위란 '가배(嘉俳)'를 의미한다. 이때 가배란 '가부·가뷔'의 음역(音譯)으로서 '가운데'란 뜻인데, 지금도 신라의 고토(故土)인 영남 지방에서는 '가운데'를 '가분데'라 하며, '가위'를 '가부', '가윗날'을 '가붓날'이라고 한다. 또 8월 초하루에서 보름께까지 부는 바람을 "8월 가부새 바람 분다"라고 한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가뷔·가부는 뒷날 가위로 속전(俗轉)된 것으로 알 수 있으니, '추위서'를 현재에도 '추버서'로 하는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가위란 8월 중에서도 정(正) 가운데란 뜻이니, 정중심(正中心)을 우리가 '한가분데' 또는 '한가운데'라고 하듯이 '한'은 제일(第一), 큰(大)의 뜻 이외에도 한(正)의 뜻이 있음도 알 수 있다.

한가위를 추석, 중추절(仲秋節·中秋節) 또는 중추佳절(仲秋佳節)이라 한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즉 한자가 전래되어 한자 사용이 성행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중추(中秋)'니 '추중(秋中)'이니 하고, '칠석(七夕)'이니 '월석(月夕)'이니 하는 말들을 본받아 이 말들을 따서 합하여 중추(中秋)의 추(秋)와 월석(月夕)의 석(夕)을 따서 추석(秋夕)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8월 15일을 '가위'라고 하고 '추석'이라고도 함은 고전 문학에서도 보이는데, 고려때 가요인 '동동(動動)'에서는 "8月 보로 아으 嘉俳나리마 니믈 뵈셔녀곤 오 날 嘉俳샏다 아으 動動다리"라 하고, 조선조 때의 가사인 사친가(思親歌)에는 "8月 秋夕日에 백곡이 풍등하니 落葉이 秋聲이라 무정한 節序들은 해마다 돌이오네 여기저기 곳곳마다 伐草香花하는구나(中略) 슬프도다 우리부모 추석인 줄 모르시나"라고 되어 있음을 보아 '가위'란 말보다 '추석'이란 말이 훨씬 후대에 와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추석의 유래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고대에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에 이미 일년 중에서 가장 달이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후에 와서 의식화(儀式化)되어 명절로 제정(制定)을 보게 되어 오늘날 까지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르던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가지고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이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추석의 풍속

추석에 행해지는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성묘(省墓)·차례(茶禮)·소놀이·거북놀이·강강수월래·원놀이·가마싸움·씨름·반보기·올게심니·밭고랑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벌초와 성묘 추석에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 주는데 이를 벌초라 한다. 옛날 조상의 묘를 풍수 설에 의한 명당에 쓰기 위하여 몇 십리 먼 곳에까지 가서 쓰는 수가 많았고, 또 묘를 쓴 다음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묘가 집 근처가 아니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추석을 맞이 하여서는 반드시 벌초를 하는 것이 효성의 표시와 도리로 여겼다.



차례 추석 이른 아침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종가(宗家)에 모여

고조(高祖)까지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는 절차가 설날과 다른 것은 흰떡국 대신 메[밥]를 쓰는 점이다. 조상에 대한 추원 보본(追遠報本)과 천신제(薦新祭)를 겸하였기 때문에 제물은 신곡으로 만들어 진열된다. 고조 이상의 윗대는 10월에 시제라 해서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소놀이 추석날 차례를 마치고 난 뒤 알맞은 시간에 소놀이가 진행된다. 먼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농악대가 풍물을 울리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두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명석을 뒤집어 씌우며 뒷사람은 큰 새끼줄로 꼬리를 달고, 앞사람은 막대기 두 개로 뿔을 만들어 소의 시늉을 한다. 소를 끌고 농악대와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농집이나 그 해에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고 외치면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한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은 앞마당으로 들어가 농악을 치고 놀면 주인집에서는 술과 떡과 찬을 차려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 놀다가 다시 소를 끌고 다른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가 해가 질 때까지 어울려 논다.

원놀이 · 가마싸움 명절이 되면 훈장도 고향에 가서 차례 성묘를 하게 되므로 서당은 며칠을 쉬게 되고 학동들은 자유롭게 놀 수가 있었다. 이럴 때에 학동들에 의해서 원놀이와 가마싸움이 있게 된다. 원놀이란 학동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재치있는 사람을 원님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학동들은 백성이 되어 원님께 소장을 내어 그 판결을 받는 놀이이다. 이 때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원님은 사건을 잘 해결하지만 서투른 원님은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다. 장차 과거에 등과해서 벼슬을 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학동들의 놀이로서는 매우 적격이었다. 가마싸움도 학동들이 주가 되어 행하여졌다. 가마를 만들어 이웃 마을 학동들과 또는 이웃 서당의 학동들끼리 대결을 하는 놀이이다. 가마를 끌고 넓은 마당에 나아가 달음질해서 가마끼리 부딪혀 부서지는 편이 지게 되는 데 이긴 편에서 당년에 등과가 나온다고 한다.

반보기 추석이 지난 다음 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 일자와 장소를 미리 정하고 만나는 것을 반보기라 한다. 옛날에 시집 간 여자들은 마음대로 친정 나들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녀 사이에 중간지점을 정해서 서로 즐기는 음식을 장만하여 만나 한나절 동안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푸는 것이 반보기인 것이다. 또 한 마을의 여인들이 이웃 마을의 여인들과 경치 좋은 곳에 집단으로 모여 우정을 두터이하며 하루를 즐기는 수도 있다. 이 때에 각 마을의 소녀들도 단장하고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며느릿감을 선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반보기란 중로(中路)에서 상봉했으므로 회포를 다 풀지 못하고 반만 풀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올게심니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대문 위에 걸어 두는데 이것을 올게심니라고 한다. 올게심니를 할 때에는 주찬(酒饌)을 차려 이웃을 청해서 주연을 베푸는 수도 있다. 올게심니한 곡식은 다음해에 씨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에 올렸다가 먹는다. 올계심니를 하는 것은 다음해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뜻이다

■ 추석의 시절음식

추석은 시기적으로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이므로 이즈음에는 여러가지 시절 음식이 있다.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제찬을 준비하는데, 설날의 제찬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추수의 계절이라 햇곡식으로 밥과 떡, 술을 만든다. 철이 늦은 해에는 미리 밭벼(山稻)를 심었다가 제미(祭米)로 쓰는 일도 있다. 이렇게 햅쌀로 밥을 지으면 맛이 좋고 기름기가 있으며, 떡도 맛이 좋다.



〈송편〉

추석의 대표적인 절식으로로는 송편을 빼놓을 수가 없다. 송편 속에는 콩·팥·밤·대추 등을 넣는데, 모두 햇것으로 한다. 열나흘날 저녁 밝은 달을 보면서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만드는데, 송편을 예쁘게 만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잘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해서 처녀, 총각들은 송편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또 임신한 여자가 태중의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할 때에는 송편속에 바늘이나 솔잎을 가로놓고 찢 다음 한쪽을 깨물어서 바늘의 귀쪽이 나 솔잎의 붙은 곳을 깨물면 딸을 낳고 바늘의 뾰족한 곳이나 솔잎의 끝쪽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이를 점치기도 한다. 특히 올벼로 만든 송편은 올벼 송편이라 부른다.

추석의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이 바로 술이다. 추석 술은 백주(白酒)라고 하는데, 햅쌀로 빻었기 때문에 신도주(新稻酒)라고도 한다. 추석 때는 추수를 앞 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풍족해진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후해서 추석 때에는 서로 술대접을 하는 수가 흔하다.

또 이 때의 가장 넉넉한 안주로 황계(黃鷄)를 들 수 있는데, 봄에 알을 깬 병아리를 길러서 추석 때가 되면 잡아먹기에 알맞게 자란다. 또 옛날에는 명절에 어른에게 선사하는 데에 닭을 많이 썼다. 친정에 근친하러 가는 딸은 닭이나 달걀꾸러미를 가지고 갔으며, 경사가 있을 때에도 닭을 선물했으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손쉬운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특히 사위가 찾아오면 장모는 닭을 잡아 대접하는 일이 흔했다.

녹두나물과 토란국도 추석의 절식이다. 녹두나물은 소양(消陽)한다고 하지만 잔치상에 잘 오르고, 토란은 몸을 보한다고 해서 즐긴다.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http://www.nfm.go.kr>)

내포문화의 중심 가

내포지역이란 충남 서북부 지역인 서산, 당진, 예산, 홍성, 태안을 한번에 아우르는 말이다. 최근 홍성과 예산지역에 들어서는 도청신도시의 이름도 이러한 지역적 상징을 고려하여 내포시로 정해졌다.

내포(內浦)지역은 밀물 때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내륙 깊숙이 올라오는 지역이며, 공통적으로는 내륙의 포구가 있었던 곳이다. 우리지역도 과거 육상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내포지역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많은 교류를 가져왔다. 따라서 내포지역은 바다를 통한 해상교통의 중심지이며, 이 중심에는 가야산이 있다.

가야산은 해발 677m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과거 원거리 항해가 어려웠던 시대에 가야산은 항해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고려시대 사신을 맞이했던 안흥정(安興亭)이 가야산에 있었던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야산은 통일신라 904년 부성군(富城郡) 태수를 지낸 최치원이 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의 주(注)에 ‘웅주(熊州) 가야협(伽耶峽)의 보원사’라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불려왔을 것이다. 가야(伽倻)라는 이름은 석가모니가 해탈한 곳인 부다가야(Buddhagaya)에서 나온 말로 불교와



학예연구사
이 강 열

1) 李重煥의 『擇里誌』에 가야산(伽倻山) 주위에 십현(十縣), 즉 아산(牙山), 당진(唐津), 면천(沔川), 홍주(洪州), 덕산(德山), 해미(海美), 결성(結城), 서산(瑞山), 태안(泰安), 보령(保寧) 일대를 총칭한다.



가야산의 이름없는 절터



이곳에서 발견된 석등

관련이 있는 명칭이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불교유적은 가야산 전체에서 확인될 만큼 그 수가 많다. 서산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수덕사, 개심사, 문수사, 일락사, 보덕사, 원효암, 송덕암등 현재 사찰이 남아있는 곳 이외에도 흔적만 남아있는 이름 없는 절터들이 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옛 절터는 학술조사를 통해 유적의 연대와 중요한 유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향후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불교의 성지로서의 가야산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야산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다채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백제 시대부터 고대 교통로 주목받아왔고, 대중국 교역에 있어서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충청병마절도사영을 가야산 지맥인 해미로 옮겨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전래의 중심지로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이며, 무형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판소리 중고제의 본고장, 장승과 미륵을 중심으로 한 마을제의 전통이 잘 남아있다. 사회적으로는 농촌과 어촌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언어와 민속을 이어나가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 즉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지를 만드는 것이다. 가야산지를 통해 그 동안 말하여왔던 내포문화에 대한 구체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형의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가야산의 옛사찰 탐방로 같은 문화재 답사 코스도 하나의 활용 예에 들것이다. 가야산은 내포지역 사람들에게는 산 이상의 의미를 넘어 내포문화를 만든 산파이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재창조한 문화의 용광로로 존재한다.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18세기 조선 지성사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대문장가이다. 실학자로서의 연암이 '이용후생(利用厚生)'에 기반한 그의 사상적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문장가로서의 연암에게는 보통 <허생전>이나 <호질> 등 한국 소설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문장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사대부 선비에게 문장이란 오늘날의 시나 소설 등과 같은 문예물의 창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장이란 글로 표현되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대부 선비에게 문장은 사실상 그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전근대사회에서 사대부(士大夫)는 지배 계급의 표상 이전에 독서와 지식으로 무장된 도덕적 교양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렇기에 문장은 바로 그렇듯 지식과 교양으로 무장한 선비가 세상과 만나는 일종의 통로였던 셈이다. 문장이란 사대부 선비의 존재적 이념이 표출되는 현장(現場)이었기에, 이곳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부와 권세를 갖지 않았던 이들 또한 전혀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이유가 없다. 연암의 글이 시대를 뛰어넘어 훌륭한 고전적 지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의 결과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연암이 세상에 대해 가졌던 하나의 출구이자 그에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무기였던 것이다. 종이 위에 그려진 먹의 흔적에 불과한 문장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글을 잘 하는 지는 방법을 아는 것일까? 글자는 비유컨대 병사이고, 뜻은 비유하면 장수이다. 제목이라는 것은 적국이고, 전장典掌 고사故事는 싸움터의 진지이다. 글자를 묶어 구절이 되고, 구절을 엮어 문장을 이루는 것은 부대의 대오隊伍 행진과 같다. 운韻으로 소리를 내고, 시詞로 표현을 빛나게 하는 것은 군대의 나팔이나 북, 깃발과

같다. 조응이라는 것은 봉화이고, 비유라는 것은 유격의 기병이다. 억양반복이라는 것은 끝까지 씨워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고, 제목을 깨뜨리고 나서[破題] 다시 묶어 주는 것은 성벽을 먼저 기어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다. 함축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반백의 늙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고, 여음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떨쳐 개선하는 것이다. [박지원, <문단의 붉은 깃발(소단적치인)>]

연암은 명문 가문의 존재였지만 일찍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지인들과 함께 학문과 우정을 나누는 것으로 평생을 살았다. 『연암집』은 젊은 시절부터 연암이 교유했던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문집에 써준 각종 서문과 발문 및 묘비명(묘지명) 등 일상의 순간들이 살아 넘치는 연암 문장의 보고(寶庫)다. 위에 인용된 글은 연암이 자신의 처남이자 지기인 이재성을 위해 써준 <소단적치인(騷壇赤幟引)>이란 글의 일부다. ‘소단적치’란 소단[=문단(文壇)]의 붉은 깃발, 즉 이재성이 선인들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선인들의 명문장들을 모아놓은 책 제목이었다. 한 마디로 가장 공식적인 글쓰기의 모범답안이었던 셈이다.

연암은 글의 처음부터 글쓰기를 방법에 비유하며 총횡무진 서술한다. 글쓰기와 병법이라는 ‘생똥맛은’ 두 대상은 연암의 날카로운 문장 아래에서 절묘하게 부합되어 간다. 글자는 병사와 같고, 뜻은 장수와 같으며, 제목은 제압해야 할 상대이다! 하지만 결론은? 연암은 이렇게 말한다. 예컨대 전장(戰場)을 뚫고나온 선조들의 군사전략들이란 모두 훌륭한 사례들이 틀림없긴 하지만, 그러한 모범적인 전법들이란 또한 바로 그와 같이 적절한 ‘때’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냐는 것! 문장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선배들의 문장이 좋다 해도 그것을 좇아 흉내내서는 결국 가짜가 될 뿐이다. 천하의 대문장이란 고급에 유래가 없는 바로 그 사람만의 문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누구의 문장을 따를 것인가가 아니다. 진실로 이치를 담고 있다면 고급 문인관료의 글이나 말 뿐만 아니라 시속의 아이들 노랫소리도 최고의 문장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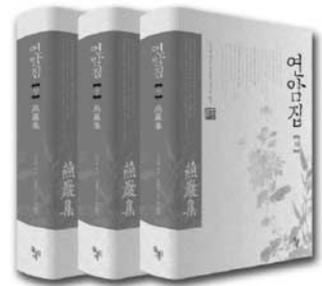
연암의 이러한 문장관은 후배인 박제가의 문집에 붙여준 <초정집 서문>이나 제자 이서구에게 일러준 <녹천관집 서문>, 친구인 이덕무의 시집에 써준 <영처고 서문> 등에서도 비슷한 듯 다르게 변주된다. 그 비슷함에서 문장에 관한 연암의 뚜렷하고 일관된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 미묘한 차이들을 따라서는 서로 다른 조건과 대상 앞에서 글을 쓰는 연암의 ‘변화하고 합하는’ 유연함이 드러난다. 이렇듯 연암의 모든 글은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순간과 마주침으로써 생성되는 반복불가능한 단 한번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연암은 글쓰기가 어떻게 ‘나’와 ‘우주’가 만나는 사건의 현장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지금 이곳’에서 나의 글을 쓴다는 것. 연암의 이러한 문장관은 단순히 현대의 유행을 따른다는

금문주의(今文主義)가 아니다. <초정집 서문>에서 문장이란 옛 것을 따르는 ‘법고(法古)’와 지금 이곳에서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창신(創新)’의 상호 작용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연암은 당대의 사람들이 글이 너무 판박이 같아서 한 편의 글로 여러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해서야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연암이 글쓰기에서 진기(眞機)를 드러낼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진기란 고귀하고 특별한 무엇이 아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일회적인 자신만의 무엇! 그것이 진기다. 진기는 한 순간도 같은 모습일 수 없다.

연암은 당대 조선 선비들이 “과문(科文)의 낡은 관습에 골몰하여 진부한 말들을 늘어놓거나 남의 글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순수하고 질박한 글을 짓는 체하여 문풍(文風)이 날마다 거칠고 무잡스럽게 변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글쓰기가 거칠고 무잡스러워진다는 건 세상의 질서가 곧 그렇듯 거칠고 무잡스러워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진기를 회복해야한다는 말은 세상과 대면하는 매순간마다 마음의 본체를 드러낸다는 연암 문장관의 정수에 해당한다. 당연히 그것은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매순간 매순간의 진기가 바로 자연의 이치이므로! 글쓰기는 자연의 그 미묘한 변화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걸고 생명의 진기와 만나는 것으로써, 연암의 글쓰기는 연암의 무기가 되었다.



글쓴이 소개

문 성 환 (文聖煥)

- 수유너머 남산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졸업

한복

한복을 입어야하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TV드라마 사극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한복을 제대로 입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멋진 한복을 입을 수 있다.



한복 디자이너
이 남 려

올바른 한복 입기

여자 한복

우선 속에 짧은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버선목까지 오는 긴 바지를 입는다. 계절에 따라 누비 바지나 고쟁이를 입기도 한다. 그리고 브래지어를 하여 가슴 위치를 고정시킨다.

속바지(겉치마 보다 2-3cm 짧아야 함)를 입은 다음 속버선이나 얇은 양말을 신고 겉버선은 수늬가 마주보게 신는다. 이때 수늬가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닿게 대고 중앙에서 발 안쪽으로 엷어지게 신어야 모양새가 곱다.

겉치마는 겉자락이 왼쪽(치맛자락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화류계 여인들이 했던 차림)으로 여머지도록(뒷 중심에서 양쪽으로 7cm 정도 여머지도록)한 후 앞에서 끈을 맨다. 치마 속에 무지기 치마를 입으면 치마 볼륨이 커지고 상체가 작아 보여 안정감이 있다.

연한 색의 얇은 감으로 만든 속저고리를 입는다.(겉저고리보다 길이, 화장, 깃나비로 1cm 정도 짧게 하거나 좁게 하여 겉저고리 밖으로 보이지 않게) 겉저고리는 속저고리 위에 고대와 어깨

솔기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 숙여 입고, 진동선의 구김을 정리하여 길을 접어 넣어 반듯하게 잡아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한 후 어깨에 가볍게 올려놓은 듯 입는다.

동정니를 맞춘 후 안고름을 맨 다음 겹고름을 매는데 겹고름은 한번 매어 긴 고름으로 걸것 쪽으로 눕혀 대고 짧은 고름으로 돌려 구겨 지지 않고 반듯하게 맨 후 저고리 모양을 바로 잡아준다. 외출 시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예의이다.

그 외에 한복에 어울리는 소품, 장신구로 멋스러움을 살리는 것도 좋는데 여름은 옥으로 된 장신구, 겨울은 금으로 된 장신구가 어울린다.

노리개는 원래 긴 고름에 끼우게 되어 있으나 요즈음은 약식으로 치마단에 고정시키면 된다. 핸드백은 치마 저고리나 두루마기와 같은 감으로 만든 덮개 백을 드는 것이 좋다. 흰색 고무신이나 수놓은 꽃신과 가죽신 등 자신의 한복에 어울리도록 맞추어 신는다.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이 동정에 닿지 않도록 뒤로 아담하게 모으는 스타일이 좋다. 결혼유무, 나이에 따라 쪽을 지거나 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 한복

속옷으로 내의나 속바지를 입은 뒤 양말을 신는다. 그 위에 바지를 입고 허리를 앞에서 크게 여며 허리띠로 매어입은 다음 발목에서 대님을 맨다.

대님 매는 법은 먼저 발목 안쪽 뼈에 폭을 맞추어 잡은 후 발목 앞에서 바지 부리를 뒤로 돌려 붙여준다.

저고리는 조끼, 마고자와 함께 끼워 한꺼번에 입은 뒤 동정니를 맞춰 고름을 맨 다음 조끼 마고자 단추를 끼고 그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다.

한복 다양한 활용방법

오래된 한복이나 유행이 지난 한복들은 애물단지이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입기위해 고가를 주고 맞추거나 샀던 한복이 옷장 속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보자.

모시여름한복은 여름 누비이불 만들어 사용하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좋다. 그 외에도 모시한복은 민소매 원피스로 리폼



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블레로를 살짝 걸치시면 멋진 의상으로 재탄생될 수 있고, 양단으로 된 치마 저고리나 두루마기 등도 홈웨어로 리폼하면 독특하고 멋진 나만의 드레스가 될 수 있다.

큰옷이나 제품을 만든 후 남은 조각 천들도 버리지 말고 조각보나 식탁매트, 방석, 화장품 케이스, 손가방, 쿠션커버, 핸드폰 장식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에코(eco)가 현대의 화두라고 한다면 재활용은 더없이 좋은 환경 생활태도이다. 새것만 좋아하기 보다는 주변의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나누어 보자.



실용생활공예

폼아트



김영실
폼아트 강사

폼아트(Form-art)란, 압축 스티로폼이라는 대중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소품에서 보드, 환경판, 더 나아가서는 각종 광고 및 게시물 등을 제작하는 실용생활공예를 말한다.

공예는 실용적인 물건에 장식적인 가치를 부가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응용미술(applied art)로 최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듦으로써 희소가치를 높이고 있는 DIY(DO-It-Yourself)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와 기술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의 환경정리, 일반 상점의 광고 및 게시물, 미적 기능을 활용한 공간 연출 등 폼아트의 활용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폼아트는 스티로폼을 원하는 모양의 곡선 또는 직선의 그림과 글씨 형태로 커팅하여 폼전용 물감으로 채색한 후, 부착하여 완성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토대로 폼아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입체감과 색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 **광고의 기능** : 광고의 고지(告知), 설득(說得), 상기(想起)의 3가지 기능을 말한다. 광고의 세가지 기능은 상호상승적으로 작용한다. 광고의 고지기능은 기업과 상품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것이다. 설득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이나 그 편익성을 심리적으로 설득, 교화시키는 것이다. 상기 기능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거나 타성으로 인해 유보하고 있는 행동에 동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폼아트의 고지기능은 폼아트 고유의 입체감과 색감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과 상품의 존재를 알리기에 충분하며, 일정한 규격과 공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므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또는 편익성 자체를 폼아트로 작품화하여 설득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폼아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소비자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 **게시의 기능** : 게시의 기능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기 위한 기능이다. 폼아트로 제작한 문자는 가독성이 높아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게시 및 공지된 시안에 적합한 캐릭터로 그 효과를 더 할 수 있다.
- **미적기능** : 폼아트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은 미적 기능을 충족시킨다. 실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폼아트가 갖고 있는 모양과 색감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적 만족을 갖게 한다.

이러한 폼아트의 기능을 활용하여 작은 소품에서부터 대형 간판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어렵고 생각하지도 못한 난항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커팅하고 채색 하면서 완성되어 과정을 보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폼아트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같은 주제와 도안을 주고 수업을 하더라도 각자 다른 채색과 기법을 추가하여 훌륭한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강사인 나도 배우는 점이 많다.

앞으로 폼아트의 기법이 다양하고 활용도 높아지면서 인테리어 및 학교 CA활동에서도 많이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공주문화원이 소개하는 명소



공주는 백제문화의 보고(寶庫)이자 역사문화 도시로서 다양한 유적지들과 박물관, 명소들이 많다. 그 중에서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公州公山城, 사적 제12호)

공산성(公山城)은 백제 웅진시대(475~538년)의 왕성(王城)으로, 공주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르는 금강의 남안(南岸)에 위치한 공산(公山)에 쌓은 높이 110m의 산성이다. 처음 성을 쌓은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으며, 원래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고쳤다. 백제 때에는 웅진성(熊津城)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및 공산성으로,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다.

성곽의 총 둘레는 2.6km로 성의 주요 출입문은 남쪽에 위치한 진남루(鎭南樓)와 북쪽에 공북루(拱北樓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37호), 서쪽 성문에는 1993년에 복원한 금서루(錦西樓)가 있다.

공산성은 웅진 시대 이후 줄곧 역사적인 전략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사비시대에는 나당(羅唐) 연합군이 사비성을 침입하자 의자왕이 피난하였던 곳이며, 822년 헌덕왕 14년에는 김현창이 이곳을 기지로 난을 일으켰다. 조선 시대에는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파천(播遷) 하였던 곳으로 이때부터 '쌍수산성'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듯, 성 안에는 백제 시대의 기와와 토기, 왕궁터, 임류각지(臨流閣址), 군창지(軍倉址) 유적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 시대에 세워진 명국삼장비(明國三將碑 충청



공주문화원장
나 태 주

남도 유형문화재 36호), 쌍수정(雙樹亭), 쌍수산성사적비(雙樹山城事蹟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35호), 광복루(光復樓), 영은사(靈隱寺) 등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군사적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는 만하루(挽河廡)와 깊이 9m의 연지(蓮池)가 있으며, 1963년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었다.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에 있는 석장리박물관은 석장리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공주 지역의 구석기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처음 석장리 유적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인이다. 1964년 봄, 대학원생인 앨버트 모어 부부가 석장리 금강 가를 답사하던 중 무너진 층에서 뿔석기(타제석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 후 이 정보에 따라 연세대학교 손보기 교수팀이 1964년 5월 다시 석기를 찾아내고 이어서 발굴허가를 거쳐 그해 11월 11일 발굴을 시작하여 1974년까지 11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발굴 결과 석장리에서는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뿐만 아니라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까지 광범위한 유물이 나타났다. 이로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역사관이 바뀌게 되었으며 5천년 역사를 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2005년 5월에 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유물을 확보하여 2006년 2월 1일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2006년 9월 26일 박물관의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개관하였다.

현재 석장리박물관에는 발굴 당시의 모든 자료와 사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게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토기인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다양한 석기가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인류, 인류의 생활상,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선사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관, 선사공원,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선사시대의 유적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선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사 유적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



흥과 멋과 예혼이 있는 곳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기관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전통 예술을 이어온 국립국악원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지난 1951년 개원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의 음악 기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멀리 신라의 음성서(音聲署)·고려의 대악서(大樂署)·조선의

장악원(掌樂院)·일제 시대의 이왕직아악부로 이어지는 왕립음악기관의 전통을 계승하여 유구한 역사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적인 국악 활성화를 위해 전북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 전남 진도에 국립남도국악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에는 부산광역시에 국립부산국악원을 개원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창작악단 등 4개 산하 단체에 200여 단원이 상주하며 미래의 전통이 될 창작과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술 연구와 국악 진흥 및 보급, 해외 공연활동 등 국악과 관련한 전 방위적 활동을 통해 온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는 음악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은 2개의 실내 공연장과 1개의 야외공연장, 국악박물관, 국악연수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740 여석 규모의 예약당은 1996년 국악 전용 공연장으로 설립되어 한국의 고유한 전통 미감이 응축되어 있다. 지난날 연주가 벌어지던 옛 마당의 분위기를 살린 무대와 토담 모양으로 구획된 객석, 그리고 방패연 모양의 음향 반사판이 무대 위 전통 예술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380여석 규모의 우면당은 무대와 객석의 차이를

좁혀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극장으로 국악과 관련한 음악과 무용은 물론 전통 연희와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이다. 특히, 예약당 2층에 위치한 어린이들의 놀이문화공간 '유아누리'에서 모든 공연관람객의 36개월 이상부터 미취학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국악체험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공연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내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예약당, 우면당의 공연 일에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국악기 체험, 전래놀이, 국악기 소고 만들기 등으로 알차게 꾸며져 젊은 기혼 관객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이 우면산 자락에 입지한 지리적 요건을 최대한 활용한 야외마당 '별맞이터'는 2,000석 규모로 만들어져 매년 5~9월 첫째주 일요일 오후에 '우면산 자락 초록음악회'를 선보이며, 가족 나들이에 좋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이미 지난 5~8월 동안 4회에 걸쳐 8천여 관객이 생동하는 자연과 행복한 우리음악의 어울림 속에 함께했다.

그 밖에도 1995년에 문을 연 국악박물관은 우리음악의 역사와 음악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국악관련 자료를 전시한 국악의 산 교육장이다. 박물관에는 유리관과 증양홀에 차분히 전시된 국악기들의 정적인 모습과 음향, 영상 등을 통해 원하는 소리와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동적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궁중음악과 제례음악 연주에 쓰이는 편종과 편경을 비롯하여 음악의 시작과 끝에 쓰이는 축과 어,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큰 북을 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연이 있는 날은 공연 시작 전까지)이며, 월요일 및 신정에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아울러 박물관 2층에 자리한 국악자료실에서는 도서 16,000여점, 공연 기록물 35,000여 점을 보유하고, 자료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명 칭 : 국립국악원
 시설현황 : 예약당, 우면당, 유아누리(놀이방), 별맞이터
 (야외무대), 국악박물관
 공연 및 안내: 02)580-3300/ 02)580-3333(ARS)
 홈페이지 : <http://www.ncktpa.go.kr>





색다른 송편 만들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 우리 조상들은 한가위를 예찬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가위를 전후해서는 푸르른 하늘, 풍성한 과일과 햇곡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추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추석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송편이다.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시집가서 예쁜 딸을 낳는다.”며 식구들과 경쟁하듯 송편을 빚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집에서 빚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고 떡집의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서산요리학원원장
홍 윤 경

송편은 모든 지방에서 잘 만드는 떡으로, 추석 때 햇곡식으로 빚는 명절 떡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햅쌀로 빚은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 하여 조상의 차례 상과 묘소에 바친다.

송편은 색에 따라 흰 송편, 썩 송편, 송기송편으로 구별하고 소도 거피하여 만든 팔고물, 풋콩, 밤, 대추, 깨고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송편을 빚는 방법도 지방마다 다르다. 서울에서는 작은 조개처럼 만들고,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는 손가락 자국을 내어 크게 만들며, 원산 지방은 뒤를 눌러 빚는다.

빚은 송편은 깨끗한 솔잎을 갈피갈피 놓고 시루에 안쳐 배보를 덮어 찐다. 바로 먹을 것은 한 김 나가면 솔잎이 묻은 채로 찬물에 잠깐 넣었다 건져 참기름을 바른단다. 매끈하고 고소한 예쁜 송편은 여자의 솜씨라 자랑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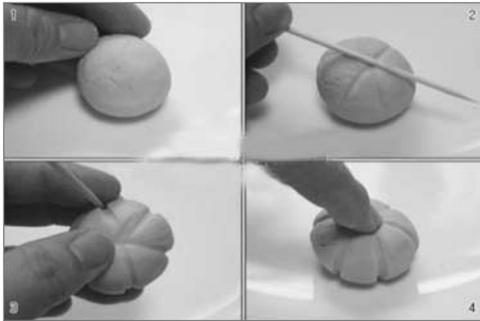
■ 호박 꽃송편

햅쌀에다 노랗게 익은 늙은 호박(단호박)을 섞어 빚는 송편

[재료] 멥쌀 5컵, 소금 1큰술, 노란호박 삶은것 1컵, 꿀는 설탕물 1/2컵, 솔잎

[소] 울타리콩 2컵에 설탕 1/2컵, 소금 약간, 물 6컵을 넣고 삶는다.





<만드는 법>

- ① 멥쌀을 씻어 불린다음 소금을 넣고 가루를 만들어 고운체로 친다.
- ② ①에 호박 삶은 것과 끓는 설탕물(설탕:물=1:1)을 넣고 익반죽하여 오래 치댄다.
- ③ ②에 위의 소를 넣고 늙은 호박 모양으로 빚은 후 썩 색반죽으로 호박잎을 표현하여 붙이고 솔잎을 깔고 찜통에 찐다. (모양 낼 때에는 이쑤시개로 섬세하게 표현한다)

■ 다식 송편

송편은 하나하나 빚기 때문에 그 모양새에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다식판을 활용하면 모양도 고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금상첨화!

[재료] 멥쌀 5컵, 소금 1큰술, 데친 썩 30g, 식용색소 붉은색 약간, 치자 1개, 뜨거운 물 약 1컵, 참기름 2큰술

[소] 거피팔 1컵, 소금 1작은술, 꿀 4큰술, 계피가루 1/2작은술



<만드는 법>

- ① 멥쌀은 불려서 가루로 뿜아 체에 쳐서 4등분한다.
- ② 썩은 연한 잎으로 골라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절구에 곱게 찧는다.
- ③ 치자는 반으로 잘라 따뜻한 물에 우려 노란색이 나오도록 한다.
- ④ 떡가루를 4등분하여 하나는 끓는 물을 그대로 넣어 흰색으로,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식용색소를 약간 타서 분홍색으로, 노란색은 치자 우린 물로, 나머지는 데친 썩과 끓는 물을 넣어 썩색으로 네 가지의 떡 반죽을 만들어 각각 한 덩어리로 합친 후 오래 치대어 젖은 면보를 덮어 놓는다.



- ⑤ 거피पाल을 불려 찌서 어레미에 내려서 소금, 꿀, 계피가루를 넣어 직경 0.7cm정도로 동글게 팔소를 빚는다.
- ⑥ 떡 반죽을 밤톨만한 크기로 떼어 동글게 빚은 다음 가운데 우물을 파서 그 속에 준비한 소를 넣고 동그랗게 아물려 다식판에 찍는다.
- ⑦ 시루나 찜통에 빚은 송편이 서로 닿지 않게 놓고 불에 올려서 약 20분 정도 찐다.
- ⑧ 다 익을 만큼 찌지면 찬물에 얼른 씻어서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참기름을 발라서 그릇에 담아낸다.

문

화

원

소

직

■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개강

- 강의기간 : 2010. 9. 6~11. 26(3개월간)
- 강의과목 : 키즈발레외 33과목
 - ※ 규방공예, 자수공예, 임산부 펠트, 장구, 서예, 전통무용, 가베지도자, 클레이아트 과목은 정원 충원시 까지 모집합니다.

■ 한월빙설 재판 기념 초청강연회

독립운동가 한월당 김상정 선생의 유고집 “한월빙설”을 증간합니다. 서산지역의 독립운동사와 애국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0. 9. 15(수) 오후 2시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2층)
- 주 제 : 김상정의 학문과 항일투쟁
- 강연자 : 김상기 (충남대 교수)
 - ※ 참석자에 한해 「한월빙설」 1권을 드립니다.

■ 명사초청문화특강

서산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 6(수) 19:00
- 장 소 : 서산시문화회관
- 강연자 : 이애란(요리연구가, 교수)
- 이 력 : 북한전통음식연구원 원장
경인여자대학 식품영양조리과 교수
탈북여성박사 1호
미국 국무부 “용기있는 국제여성상” 수상
 - ※무료 초대권 배부-선착순 600명

■ 노인일자리사업 발표회

2010 노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고 참여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0. 10. 7(목) 오후 4시
- 장 소 : 서산문화원 문화감상실, 문예관람실
- 대 상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학생
- 발표내용 : 스포츠댄스, 전통무용, 서예작품전시, 활동사진 전시 등



■ 2010 세계대백제전 입장권 할인판매

충남 부여군, 공주시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0 세계대백제전 입장권을 판매합니다. 현장 판매가보다 2,000~3,000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 판매가 : 성인-7,000원 청소년-5,000원 어린이-3,000원
- 구입처 : 서산문화원 사무국 (문의 : 669-5050)
- 선착순 70매
- ※수상공연 관람권은 별매입니다.

■ 2010 세계대백제전 시군참여 프로그램

세계대백제전 시군참여프로그램으로 서산용대기놀이를 시연합니다.

- 행사명 : 서산용대기놀이 시연
- 장 소 : 공주 및 부여
- 행사일 : 2010. 10. 10 (공주 : 13:00~14:00 예술마당)
2010. 10. 11(부여 : 14:00~15:00 구드레 행사장)
- 출연진 : 장동 및 덕지천동 주민, 스산 농요 보존회, 놀이패 빨바람

한월당 김 상 정



한월당 김상정 열사는 서산지역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중 한명이다. 김상정은 강화도 사건이 일어난 해인 고종 12년(1875년) 9월 충남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에서 출생했으며, 6.25 동란을 겪은 직후 1954년 8월 서산군 성연면 고남리에서 타계하였다. 본관은 경주, 자는 명옥(明玉), 호는 한월당(寒月堂)으로 이는 선대 한간 김한록과 월당 김일주의 호에서 취한 것이다.

김상정은 가학으로 한원진(韓元震)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원진(1682-1751, 호; 南塘, 자; 德沼)은 조선 후기 기호학파내 최대의 학술 논쟁어였던 호락논쟁의 중심에 서서 호학을 주창한 유학자이다. 한원진은 김한록을 비롯하여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고 이들의 호론적인 학풍은 홍주문화권에서 김복한, 이설을 비롯하여 김상정 등 유생들에게 전수되어 19세기 후반 적극적인 위정척사운동 내지는 항일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 김상정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심히 빈곤하여 스승을 모시고 수학할 형편이 안되었지만 고조부인 김한록 학문을 계승하여 민족적 위기가 닥침에 따라 척이단의 이념을 실천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망국민이 된 그는 철저한 의리론에 입각한 항일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1919년 고종이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머리에는 폐양립을 쓰고 허리에 삼피를 매고 혼자 부석면에 있는 망등산에 올라가 의기를 꾀고 망곡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격문을 발표하여 일본의 고종 시해의 일을 성토했다. 또한 무명지를 끊어 솟아나는 피로 '복수대의'라 혈서하여 높은 대에 걸어 놓고 민족의 봉기를 촉구하는 혈서투쟁을 전개하였다. 100여장의 혈서를 쓰는 동안 피가 마르자 가슴 살을 칼로 베고 피를 내어 손가락에 피를 적서 태극기를 만들어 다음날 산위에 기를 세우고 망곡의 예를 행하였다. 그가 혈서한 글은 모두 277자에 달한다.

군중집회에서 항일투쟁의 방법으로 납세거부 투쟁을 제시하면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 항일투쟁을 선도하여 서산지역에서 3·1운동을 봉기케 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왜경의 가혹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는 모두 다섯 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상복 차림의 그를 체포하여 강압적으로 회유하려 하였으나 그는 손가락을 자르고 왼편 귀를 자르는 등의 저항으로 이에 대항하였다. 또한 그는 일제에 의해 단행된 담배 전매제도를 반대하여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투쟁도 전개하였으나 체포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중일전쟁 후에는 격문을 발표하여 일제의 총동원령과 창씨개명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찾아가 친일매국노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확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김상정은 일제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절대로 의리를 굽히지 않는 절의정신과 의연한 민족적 자존심을 몸소 보여주어 민족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익을 다하였다. 그의 유고는 아들 김홍제씨가 번역하여 “한월빙설”을 발간하였다. 올해 문화원에서는 “한월빙설”을 증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문과 항일투쟁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 | 정 | 소 | 식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정식개관 안내

- 개 관 일 : 2010. 9. 1.(수)
- 관람시간 (월요일은 휴관)
 - 동절기 (9월~4월) : 14:00 ~ 22:00
 - 하절기 (5월~8월) : 15:00 ~ 23:00
- 장 소 :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151-8번지
- 주요시설
 - 주 관 측 실 : 600mm 반사망원경
 - 보조관측실 : 115mm 굴절 망원경의 4종
 - 전 시 실 : 류방택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천상열차분야지도, 고대 · 현대의 천문기상과학 유물 전시 및 체험, 포토존 등
 - 천체투영실 : 5D 돔 영상 상영, 가상 별자리 투영 영상 상영
-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9월)

구 분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전시실/시청각실
주 간	1회	14:00	14:30	상시운영
	2회	15:00	15:30	
	3회	16:00	16:30	
야간관측 준비 (박명시간)				
야 간	4회	19:30	19:50	
	5회	20:30	20:50	
	6회	21:00	21:20	

- 홈페이지 : <http://www.ryubangtaek.or.kr>
- 문 의 : 041)669-8496~7(과학관) / 660-2359(서산시청 지역자원과)
- 유의사항
 - 관람 시간 및 프로그램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체관람(20명 이상)시 전화 예약을 꼭 하셔야 합니다.
 - 과학관은 정식 개관 후 1년간만 무료로 운영됩니다

※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서산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서산문화원은 이들 나무에 물과 거름이 되려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서산시민과 출향인사들이 관심과 참여의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산문화원 회비 납부자 명단

매월 회비 납입 회원

- | | | |
|--------------------------|-------------------------|--------------------------|
| • 류용두 (서산시 동문동) 100,000원 | • 박수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서종심 (서산시 읍내동) 50,000원 |
| • 남현우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문천식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신정안 (서산시 동문동) 3,000원 |
| • 김묘규 (서산시 석림동) 20,000원 | • 한기홍(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박봉규 (서산시 성연면) 5,000원 |
| • 이흥구 (서산시 인지면) 20,000원 | • 김시환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임갑순 (서산시 동문동) 5,000원 |
| • 성시경 (서산시 죽성동) 20,000원 | • 박인성 (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최보승 (서산시 대산읍) 100,000원 |
| • 원정아 (서산시 석남동) 20,000원 | • 김형배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김의식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 정광수 (서산시 읍내동) 10,000원 | • 모영만 (서산시 읍내동) 2,000원 | |
| • 이남진 (서산시 읍내동) 5,000원 | • 이용진 (서산시 읍내동) 3,000원 | |

임원회비 및 일반 찬조금

- | | |
|----------------------------|------------------------|
| • 이용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30,000원 | • 이덕형(서산시 동문동) 10,000원 |
|----------------------------|------------------------|

※ 보내주신 회비는 문화활동비로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보내실 곳 : 농협(서산문화원) 455-01-169647

※ 스산의 숨결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문의 : 669-5050)